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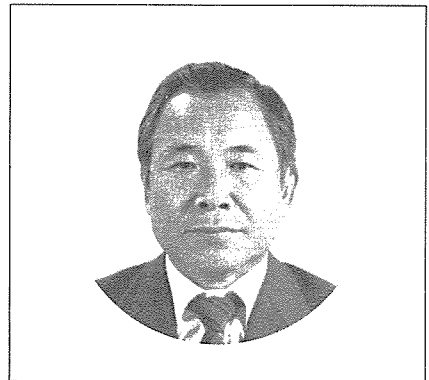
## 水資源개발에 따른 技術지원에 힘쓸터

### 創立 20주년 맞아 각종 기념사업도 전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는 水資源개발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經濟가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홍수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물 수급면에서 양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전반에 미치는 질적인 영향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韓國水文學會 姜瑄遠회장(仁荷大 공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물」은 우리 人類에게 주어진 天惠의 자원으로써 人類生存의 기본요소인 동시에 우리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식량, 농업, 공업, 전력생산등 산업전반에 걸쳐 한나라의 경제발전상 불가결의 필수요건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물관리를 잘한 나라가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했음을 상기시킨다.

姜회장은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山紫水麗한 나라로서 水資源이 비교적 풍부하고 생활을 영위하기에 알맞는 나라이나 때로는 물의 과잉유출로 인한 홍수피해와 물 부족으로 인한 旱魃피해는 각종 피해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60년대 중반부터 수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流域종합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어느 정도 用水부족을 해소하게 됐으며 과거와 같은 홍수 및 한발의 극심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는 됐으나 아직까지도 용수의 안정적공급과 홍수조절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힌다.



◇姜瑄遠 회장

姜회장은 이러한 문제해결은 근시일내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므로 보다 더 차원높은 利水와 治水의 종합적인 개발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姜회장은 이와 함께 도시의 과밀화와 고도산업화에 따른 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水質汚染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지적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질오염문제는 선진공업국에 비해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수는 없겠으나 하루 빨리 예방대책을 강구해 우리의 물줄기를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姜회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오염문제를 이웃나라의 일이라고 방심할 단계는 지났으므로 오염물을 自体淨化하거나 회석시켜 방출하는 것 뿐만아니라 식수원과 기타 용수원을 분리시켜 설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자원개발 및 水工구조물 설계시 기본이 되는 水文調査사업의 과학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하면서 精度 높은 수문자료가 바로 효과적인 수자원개발과 관리의 基本이므로 수문조사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겠다고 강조한다.

『水文자료는 수공구조물의 크기나 구조, 위치 등을 좌우하는 데이터-즉 계획시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姜회장은 한예로 교량을 건설할 때 水深은 물론 波高, 流量 등을 고려하여 위치나 크기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水工구조물 설계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가 바로 수문자료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정확한 수문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수문기술의 보급 및 계몽 등을 위해 설립된 것이 韓國水文學會라고 소개한다.

水文學會는 1967년 창립당시는 水文의 과학적치리를 보다 더 고도화하고 「물」 정책수립에 적극 참여하므로써 낙후된 우리나라 수문 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도약대를 마련하고 수문기술의 근대화를 촉진하며 국민생활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공기술을 다루는 용역업체 및 건설회사들이 모여 協會로 발족했으나 72년에 水文學을 연구하는 학자와 기술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學會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韓國水文學會는 大氣, 地表, 地下등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의 기원, 순환, 분포현상을 定量·定性的으로 다루는 수문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에 관한 이해 및 응용을 추구함으로써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水文 및 이에 관련된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 수문 및 防災·자료수집 및 보급, 수문자료의 표준화추구와 계몽, 「물」에 관한 대정부건의, 수자원에 관계된 국제기술교류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姜회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水文學 및 수문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데 반해 일반인들의 인식부족은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단적인 예로 姜회장 자신이

얼마전 있는 「평화의 댐」건설 기공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는데 자신의 직함을 水門學會長으로 표기해 상당히 민망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水文을 水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한다.

『앞으로 우리 學會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보다도 水文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 유한자원의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 개발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회원증대에도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창립 20주년을 맞아 자체사무실도 마련했으므로 사무국을 강화하여 회원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姜회장은 학회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2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특히 英國水文學연구원의 Rodda원장을 비롯 국제적인 수문학자 4명을 초빙해서 특별강연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水文學會 20年史」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또한 水文 및 이에 관련된 3만用語를 수록한 水文學用語集발간 사업에도 착수하는 한편 北韓에서 계획하고 착공한 金剛山댐 건설에 따라 대응책으로 건설중인 「平和의 댐」 건설에 따른 기술자문 등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姜회장은 끝으로 우리나라 속언에 「물쓰듯 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물의 귀중함을 모른채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방울의 물이 한방울의 석유와 같은 가격이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벌써부터 물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들이 물 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인류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자원개발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 記)